

 특허청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		
보도자료			
www.kipo.go.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			
문 의	융복합기술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	과 장 박재훈 사무관 고상호	042-481-5782 042-481-5267
 		2021년 5월 11일(화)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특허청 3인 협의심사, 특허등록도 빨라져!

- ‘특허로 1번가’ 국민제안으로 도입, 빠른 권리화 산업계 호평 -

코로나19 발생 초기, ‘코로나19 진단키트’, ‘K-워크스루’가 특허출원 됐다. 이 발명은 2개 이상의 기술이 융복합된 기술이다. 특허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미생물 전문가와 의료진단 전문가를 함께 심사에 투입했다. 결과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, 기업의 수출을 뒷받침해 K-방역의 전파에 기여했다.

- ☐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이 ‘특허로 1번가’ 국민제안을 통해 도입하여 시행 중인 3인 합의형 협의심사(이하 ‘협의심사’)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☐ 협의심사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증하는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를 심사를 위해 ‘19년 11월 도입됐다. 기존의 심사관 1인 단독 심사방식을 보완한 것이다.
- ☐ 협의심사는 하나의 발명(출원)에 대해 심사관 3인이 함께 투입된다. 기존의 단독심사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났다.(붙임 참조)
- ☐ 특허청은 융복합기술심사국이 신설된 ‘19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6,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를 실시했다. 이는

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처리한 전체 건의 16.8%에 해당한다.

- 협의심사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로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하여 우리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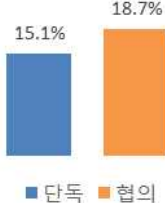
□ 특허청 서울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“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심사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”라고 강조하고,

- “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신기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붙임: 융복합기술심사국 3인 협의심사 주요 통계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
고상호 사무관(☎ 042-481-526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건당 검색횟수	착수등록률	착수등록시 직권보정 비율
 ■ 독심사 ■ 협의주심 ■ 협의부심	 ■ 단독 ■ 협의	 ■ 단독 ■ 협의

- 검색횟수(회) = 1건당 선행기술을 검색한 횟수로, 독심사의 12.3회 대비 협의심사는 18.8회(주심+부심)로 증가
- 착수등록률(%) = 심사 착수 시, 거절이유가 없어 바로 등록결정한 비율
- 착수등록시 직권보정 비율(%) = 심사 착수 시, 명백하게 잘못 기재된 사항을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고 등록 결정한 비율

⇒ 3인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심사 절차 및 기간을 단축